

종합·해설

한나라 '디도스 패닉'...당해체론 부상

원희룡 등 10명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재창당하자"

일부 의원 탈당 가능성...홍 대표 "재창당 수준 노력"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에서 '지도부 총사퇴'에서 '당해체론'까지 제기되는 등 한나라당 전체가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최 의원의 비서가 디도스 공격 전날 박희태 국회의장의 행사연설회(전문계약자 라급) K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6일 "당이 이대로 가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남경필 최고위원 역시 "(홍 대표의) 현실 인식과 풀어가는데 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

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지도부 총사퇴론을 거론했던 원희룡 최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도부 사퇴로는 늦었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 최고위원을 포함해 수도권 출신이 주축이 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한나라당이 해산 및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까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에 속한 이들은 당 지도부에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구체적인 '재창당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고, 계획이 미진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모임에는 여권 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차명진 의원, 정몽준 전 대표와 가까운 전여옥·안희태 의원, 친이(친이명박)계인 권택기·나성린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전날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예산 얘기만 하는데, 이제는 당이 수명을 다한 것 같다"고 꼬집은 뒤 탈당·재창당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향후 전개 방향은 당내 신주류를 형성한 친박(친박근

혜)의 태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와 입장을 같이했다. 지도부 교체론은 '박근혜 조기 등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이를 막아온 것이었다.

문제는 디도스 파문은 당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점. 가만히 기다리는 박근혜 전 대표도 격랑에 휩쓸릴 수 있어 친박계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당에서는 친박계 유 최고위원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당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파도를 넘으면 끝인가 싶었는데 돌아보면 더 큰 파도가 온다"며 "정치도 세상사도 그런 이치로, 문제는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느냐에 달려있다"며 "파도론"을 되풀이했다. /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5·18묘역 참배 심상정·유시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대선서 민주당과 적극 연대"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방문 간담회... 이병완 의원 탈당

통합진보당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는 당 출범 이틀째인 6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 당원과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공동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광주 국립 5·18 묘지와 구 묘역을 참배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동자·농민·시민이 힘을 합쳐 이뤄진 통합진보당은 내년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힘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연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서민의 벗, 민중의 대변자인 좋은 인물과 민주·인권·자유·사회정의를 실현할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며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겨룰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최근 통합직전 광주에서 1000여 명이 입당했고, 전남에도 통합진보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공동대표단은 7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와 면

담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1일 창당보고대회에 이어 광역시도 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15일에는 대규모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국민참여당 상임고문을 맡았던 이병완 광주 서구위원은 지난 5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국민참여당 임시 전국당원대회에서 통합진보당 합류가 결정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당의 창당 정신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참여당을 출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의 '소통합'에 반대파를 밝혀왔던 당내 인사들의 탈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정남준, 9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9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새 풀이 현 풀을 이긴다-정남준이 건네는 세상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종전 출판기념회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 등 시민참여 출판기념회로 열릴 예정이다.

정 전 차관의 저서는 그동안 스마트 시대에 세상과 소통하며 써내려간 글을 모았으며, ▲블로그 속 세상만사 ▲점속하고 대화하고 공명하기 ▲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법(칼럼) ▲광주 안 살림, 열정의 기록(광주 시장 에피소드)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정용화, 시의회 예결위 심의 참관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전남지역 특별위원장이 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을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급이 예산 심사를 참관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보며 주요 사업에 대해 메모를 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던 인사로서 광주시정과 주요 예산에 대해 관심이 있어 심사 과정을 참관했다"며 "예결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신있는 심의를 펼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성 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과정을 거쳐 도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도의원 3명 장애인 정책 우수



〈허경숙 의원〉 〈강성희 의원〉 〈윤시석 의원〉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 3명이 장애인 정책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나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6일 "전남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허경숙(민주·순천5) 의원이 최우수위원으로, 강성희(민주·목포1), 윤시석(민주·장성1) 의원이 우수위원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광주 장애인 인권포럼과 함께 민선 5기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61명과 22개 기초의회 243명을 대상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 우수위원들을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철홍, 마을기업 육성 조례 발의

박철홍(민주·담양 1)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의 조례를 대표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6일 지역공동체에 흠어린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도의회 여성특위 위원장에 한승주

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초대 위원장에 한승주(민주·비례·사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석 의원(무소속·장흥 1)을 각각 선출했다.

"정권교체 밑거름 되겠다"

김정길 전 장관 '길벗중앙회' 전국회의서 강조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국민이 원하는 다음 세상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 '길벗중앙회'(회장 엄대우)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 "현재 국민에게는 정치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길벗중앙회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또 "20여년을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지 자문해본다"면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내가 거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각오가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1992년 (포마)민주당과 평민당이

합당할 때 당시 김정길 의원은 야권통합이 마치 낙선을 하려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섰다"고 김 전 장관을 추켜 세운 뒤 "통합을 할 때 어떤 흐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체하지는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길'을 여러분이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야권통합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전국대표자회의에는 김 의원과 이 전 의원 외에도 김태량·이상우·황낙주 전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극성 전 경기도 부지사, 조충훈 전 순천시장 등과 전국의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약접수 중

개강: 1월 2일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합격! 분명한 강자! 최고의 시설!**

9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합격! 분명한 강자!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강력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